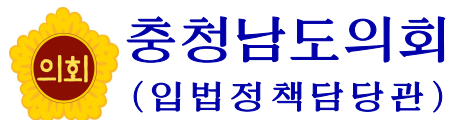


2015.9.9.(수)

■■■■■ 순 서 ■■■■■

2015년 제6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결과보고



1. 포럼 개요	2
2. 주요 벤치마킹 사항	4
3. 행사별 주요 관찰 사항	5
4. 주요인사 연설요지	7
5. 향후 조치 계획	8
6. 주요 활동 장면	9

【붙임】 언론 보도 자료 / 13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결과보고

1 포럼 개요

- 때 · 곳 : 2015.9.2(수)~9.5(토) / 일본 니가타시 호텔 이탈리아켄 3층 산마르코
- 참가국 : 동북아 5개국 / 12개 지방의회(70여명)
 - 중국(4), 러시아(3), 일본(2), 몽골(1), 한국(2)
- 포럼주제 : 『문화교류로 구축하는 동북아시아 협력 관계』
- 주요내용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및 벤치마킹
- 주요일정

1일차(9.2.) : 도의회 출발 → 인천공항 → 니가타공항 도착 → 숙소

2일차(9.3.) : 사무연락회의 → 니가타시의회 의장예방 → 시찰 → 오찬 → 기념사진 촬영 → 개회
→ 내빈인사 → 주제발표 → 각서 확인 → 차기 개최지 대표 인사 → 리셉션

3일차(9.4.) : 니가타시 주요 현장시찰 → 만찬

4일차(9.5.) : 니가타공항 출발 → 인천공항 → 도의회 도착

- 대표단 구성 : 총9명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요 역 할	비 고
충청남도의회 (3)	의 장	김 기 영	■ 입법포럼 주제발표 및 총괄	의원 3명 직원 6명
	위원장	조 길 행	■ 국제교류	
	의 원	맹 정 호	■ 국제교류	
충무담당관실 (3)	담당관	신 기 영	■ 입법포럼 자료 준비 등 현지총괄	
	직 원	최 평 근	■ 의전수행 및 벤치마킹	
	직 원	김 관 동	■ 현지협의 및 벤치마킹	
입 법 정 책 담 당 관 실 (3)	팀 장	박 범 열	■ 현지협의 및 벤치마킹	
	직 원	김 현 수	■ 현지협의 및 벤치마킹	
	직 원	최 태 영	■ 현지협의 및 벤치마킹	

세부일정표

일자	시 간	세 부 일 정	비고(장소)
9.2 (수)	14:30	도의회 출발	
	18:35	출국	인천공항
	20:35	도착	니가타공항
	21:00	숙소 도착 및 환영 만찬	호텔 이탈리아켄(포럼 개최장소)
9.3 (목)	08:45	사무연락회의	호텔 이탈리아켄
	10:15 - 10:30	니가타(新潟)시의회 의장 예방	호텔 5층「아사히(朝日)」
	10:30 - 11:30	시찰구 사이토가(齋藤家) 별장	
	12:00	중식모임 A(의장 1명) 중식모임 B(기타 참가자)	호텔 이탈리아켄 호텔 5층「카스가(春日)」
		휴식	호텔 룸
	13:45	기념사진 촬영(의장)	
	14:00 - 17:00	- 개회 및 내빈 인사 - 의장 주제발언 : 니가타시 이후 알파벳순(5분) - 각서 확인 (즉독) - 차기 개최지 대표 인사(3분)	호텔 3층「산마르코」 (동시통역)
		휴식	호텔 룸
	18:00 - 19:30	리셉션	호텔 3층「산마르코」
9.4 (금)	9:30	시찰 (물과 흙의 예술제 베이스캠프) (니가타시역사박물관)	
	12:00	중식	박물관인근 레스토랑
	13:15	시찰 (만화애니메이션 정보관) (니가타시수족관 마린피아 일본해)	강원도의회와 동행 니가타시 지원(협조)
	18:00	만찬	와쇼쿠(호텔인근/도보)
9.5 (토)	07:20	체크아웃 및 호텔출발	호텔 이탈리아켄
	09:30	출국	니가타공항
	11:45	도착	인천공항
	15:00	도의회 도착	

2 주요 벤치마킹 사항

- 이번 두번째 개최지인 니가타시의회는 입국(영접)에서 출국(환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포럼이 진행되었음
 - 시의회 의원 및 관계직원들의 자세와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한 모습에서 일본 특유의 국민성을 느낌

⇒ **참가단별 시의회 의원(1명) 및 직원(통역·안내)배치, 밀착 지원**

- **(개최장소)** 숙소와 행사장을 건물내 포함, 행사진행이 원활함
 - 별도의 차량 이동 없이 모든 행사를 한 건물에서 소화
 - **(현지시찰)** 포럼 행사장 인근 선정, 이동 동선 및 시간 단축
 - 시립박물관, 물과 흙 축제장, 수족관, 애니메이션 전시장 등
 - **(주제발표)** 대연회장에서 연설 위주의 진행으로 전반적 흥미 반감
 - 참가단별 다양한 PPT 발표 및 전문가 기조연설 병행 필요
 - **(이동버스)** 배차차량(중형 25인승), 여유 공간 부족
 - 참가단별인원, 소지품 등을 고려 가급적 중대형(30인승) 버스 배차
 - **(부대행사)** 부대행사 없이 본 행사 위주의 진행으로 다소 지루함
 - 휴식시간 주제관련 부대행사 전시공간 진행으로 흥미와 관심 유도
- ※ 주제관련 부스설치, 문화예술 프로그램 준비 필요
- **(홍보물)** 주제발표 자료집 외 별도 홍보 자료 없음, 볼거리 미흡
 - 포럼 홍보물 제작(앰블럼, 포스터, 플래카드) 등 CI제작 필요
 - **(외빈초청)** 포럼 개막식 외빈(주요인사) 초청 간소화
 - 니가타시장 및 참가국 총영사로 한정 초청 축하 진행
 - **(통·번역)** 행사관련 통역원 배치 및 포럼자료 번역(언어권별 통·번역)
 - 참가단별 통역원 배치, 포럼 관련 자료 참가국 언어 번역 안내

3 행사별 주요 관찰 사항

행 사 별	진 행 사 항	관 찰 사 항	비 고
① 입국(영접)	○ 공항에 영접단 배치(총3명) - 의원 1, 안내직원 1, 통역 1 ○ 중형버스 배치(25인승) - 인원(강원도 포함) 및 소지품 고려할 때 다소 협소	○ 포럼행사예 의원별 분담 - 조선의원 순으로 분담 ○ 안내차량 배차시 - 인원 및 소지품 고려하여 여유 있게 배차 ※ 환영 현수막 및 방문단 대표(의장) 꽃다발 준비 필요	
② 숙소(도착)	○ 숙소 도착 후 만찬 준비 - 참가단별 안내의원 주재	○ 늦은 시간임에도 참가단 환영 만찬 준비 - 참가단과 친교시간 마련	
③ 연락관 회의	○ 조식 후 사무연락회의 실시 - 니가타시의회 사무처 직원 주재	○ 참가단별 개별 통역원을 배치하여 연락관 회의 실시 - 연락관 회의 유인물 배부 - 포럼 진행 전반 사전 설명	
④ 시의회 의장 예방	○ 참가단별 니가타시의회 의장 예방 실시(15분) - 참가의원 소개, 인사말, 대표자 선물교환 등 진행	○ 참가단별 개별 통역원을 배치하여 의장 예방 실시 - 의장 예방전 통역원과 사전 인사말 조율 ※ 적절한 의장 예방 시간조정 으로 다음 일정 소화가 필요	
⑤ 현지시찰 (2일차)	○ 오찬 전 여유시간 현지시찰 실시 - 포럼행사장 인근으로 배정 (구 사이토가 별장)	○ 참가단별 개별 통역원을 배치하여 현지시찰 실시 - 현지시찰 장소를 포럼행사장 인근으로 배정하여 이동 동선과 시간을 절약	
⑥ 오찬	○ 포럼행사장과 동일한 곳으로 오찬장 배치 - 의장단과 기타 참가자로 구분	○ 오찬장을 의장단과 기타 참가자로 구분하여 배치 - 의장단(12F): 썬빙 실시 - 기타 참가자(5F): 뷔페식	
⑦ 포럼 행사장	○ 오찬장과 동일한 건물내 3층 - 행사장 영접, 안내, 도우미, 규모 좌석배치, 음향 등 시설	○ 별도의 행사장 영접은 없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행사장 안에서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	
⑧ 포럼 행사	○ 건물내 3층 대연회장에서 연설 위주의 진행으로 실시 - 개최전 참가국대표(의장) 기념사진 촬영	○ 니가타시를 제외하고 참가국들이 연설 위주의 진행으로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고 주제 발표가 후반부로 갈수록 짧고 빨라	

행 사 별	진 행 사 항	관 찰 사 항	비 고
⑧포럼 행사	- 개회 이후 니가타시의회의 의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내빈(니가타 시장 제 니가타 라이안방 총영사, 중화인민공화국 주 니가타 총영사,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인사 - 니가타시 의장 주재 발표 이후 알파벳순 5분 간격으로 참가국 의장 주재 발표 - 의장 주재 발표 이후 즉독으로 각서 확인 - 각서 즉독후 3분간의 차기 개척지 대표 인사 - 폐회	- 지는 경향이 있었음 ※ 식전이나 중간에 부대행사를 준비(전통공연 등 볼거리) ※ 참가국들의 다양한 시청각자료 준비로 연설위주의 주제 발표 탈피 (PPT활용 권장) ※ 개회식전 개별입장보다 단체 입장으로 진행방법 개선	
⑨리셉션	○ 건물내 3층 대연회장장에서 실시 - 리셉션 전과 중간에 니가타시 고전극 공연이 있었음 - 좌석은 의장단과 기타 참가자로 구분하여 명패로 좌석을 지정함 - 테이블에는 통역원과 의원 및 직원을 한명씩 배치하였고, 건배주와 더불어 기본식사 도구가 셋팅됨 - 음식은 도우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썬빙 되어서 나옴	○ 리셉션의 시작과 끝이 명확 하였음 ○ 리셉션 중간에 참가국 대표 (의장)간의 선물교환이 이루어짐 ○ 테이블에는 건배잔이 미리 마련되어 첫 건배잔을 따르는 번거로움을 없앴 ※ 통역원을 한명만 배치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음	
현지시찰 (3일차)	○ 포럼 행사장 인근으로 선정 하여 이동 동선과 시간이 단축 - 물과 흙의 예술제 베이스캠프, 니가타시 역사박물관, 만화 애니메이션 정보관, 니가타시 수족관 마련피아	○ 현지 시찰시 통역원이 1명 배치되었으며 현지의 해설사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시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출국(환송)	○ 공항에 환송단 배치(총3명) - 의원 1, 안내직원 1, 통역 1 ○ 니가타시의회의 의장도 공항 환송에 참여	○ 영접에서 환송까지 의원1인이 배치되어 밀착 지원함 - 특히, 니가타시의회의 의장도 공항에 까지 나와 환송함	

4

주요인사 연설요지

< 니가타시의회 의장 (다카하시 미즈요시) >

- ▶ 니가타시는 국제, 국내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인 관계로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가 많으며 식문화와 풍요로운 물과 땅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니가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함
- ▶ 니가타시는 금년 ‘동아시아 문화창조 도시’로 지정되어,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 금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표단이 상호 방문 하여 각자의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바, 문화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교류라 생각하며, 사람의 교류를 문화교류의 가교가 되고 있다고 봄
- ▶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더욱 깊은 교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갈 것을 제안함

<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

- ▶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 군사적인 요소가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에 커다란 걸림 돌이 되고 있음에도, 비정치적인 부문에 있어 교류협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 ▶ 동북아시아의 경제지형은 1970년대의 일본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교류만으로는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 ▶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교류는 문화 · 예술 · 학술 · 스포츠 · 관광 등의 분야에 걸쳐 주민,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촉진자·협력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 지방정부간 우호교류는 국제교류의 성과가 아니라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한 시작이며, 세계화라는 조류 속에서 동북아의 특수성 및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5 향후 조치계획

- 일정조정 : 2016.3.8.~3.11. ⇒ 4.19(화)~22(금)/4.26(화)~29(금)
 - 매년 3월은 일본 정기의회 일정(지방정부 연도예회 3월말)으로 참가 어려움 고려
 - 포럼 주제 및 CI 선정 : 충남연구원 과제 수행중(중간보고 시간 마련)
- ⇒ 일정조정 및 주제선정 후 세부종합계획 수립 등 준비 만전

포럼 준비 로드 맵

추진 단계 추진과제 [주관(협조)부서]	1단계			2단계		3단계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① 포럼 기본계획 보완 - 개최시기, 장소, 주제 등									
② 포럼 행사 자문, 과제부여 및 수행(충남연구원)									
③ 행사관련 자료수집 등 (타기관 국제행사 비교)									
④ 포럼 종합계획 수립									
⑤ TF팀 확대 개편 추진 - 행사운영 중심									
⑥ 초청대상 포럼 일정 고지									
⑦ 참가 유치단 파견									
⑧ 행사용역 발주 준비 - 과업지시서 작성 등									
⑨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⑩ 세부 실행 계획 추진									

6 주요 활동 장면



▲ 니가타시 공항 영접(201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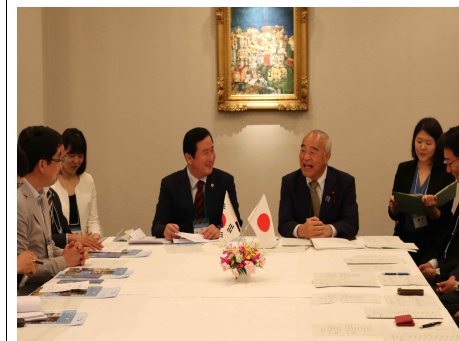
▲ 참가단 환영 만찬(201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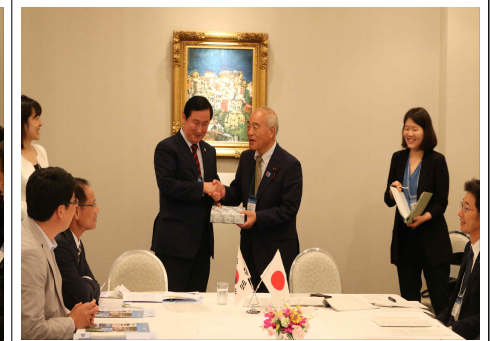
▲ 참가단별 사무연락관 회의(2015.9.3.)



▲ 참가단별 사무연락관 회의(2015.9.3.)



▲ 니가타시의회 의장 예방(2015.9.3.)



▲ 니가타시의회 의장 예방(2015.9.3.)_선물교환



▲ 포럼 행사 전 구 사이토가 별장 현지시찰(2015.9.3.)



▲ 참가국 대표(의장) 오찬장(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의장단(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주제발표(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리셉션(2015.9.3.)



▲ 제6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리셉션(2015.9.3.)



▲ 니가타시 물과 흙의 예술제 베이스캠프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물과 흙의 예술제 베이스캠프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역사박물관 현지시찰(201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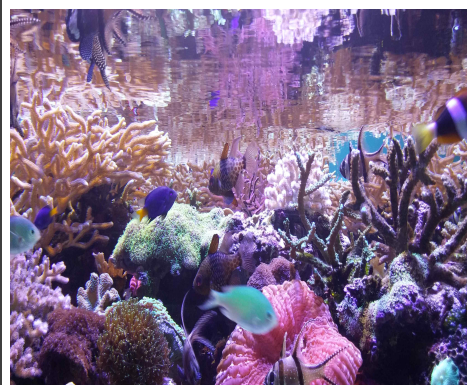
▲ 니가타시 역사박물관 현지시찰(201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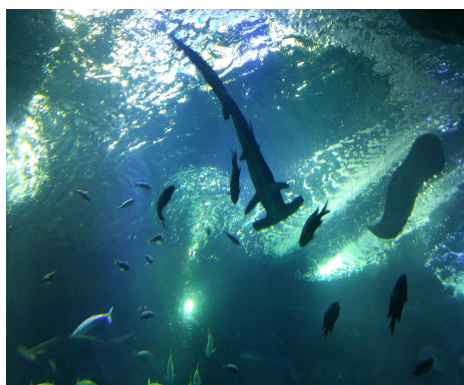
▲ 니가타시 만화에니메이션 정보관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만화에니메이션 정보관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수족관 마린피아 현지시찰(2015.9.4.)



▲ 니가타시 공항 환송(2015.9.5.) _ 시의회 의장



▲ 시의원·통역·안내 및 참가단 명찰

붙임

언론 보도 자료

니가타일보 [2015.9.4.(금)]



北東アジアの文化交流を話し合った地方議会議長フォーラム＝3日、新潟市中央区

北東アジアの文化交流を話し合った地方議会議長フォーラム＝3日、新潟市中央区

新潟市議会の高橋三義議長は「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が3日、新潟市中央区のホテルで開かれた。新潟市議会を含む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5カ国12議会の代表者ら64人が参加し、多様な文化の相互理解を深め、協力関係の構築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た。

フォーラムは2009年から参加議会議長が持ち回りで開いており、新潟市での開催は1年に続き2回目。今回は、新潟市の姉妹都市のロシア・ペロリヤン市、友好都市の中国・ハルビン市、交流事業「東アジア文化都市2015」に新潟市と取り組む中国・青島市が新たに加わり、参加団体は過去最多となった。

新潟市議会の高橋三義議長は「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が3日、新潟市中央区のホテルで開かれた。新潟市議会を含む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5カ国12議会の代表者ら64人が参加し、多様な文化の相互理解を深め、協力関係の構築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た。

フォーラムは2009年から参加議会議長が持ち回りで開いており、新潟市での開催は1年に続き2回目。今回は、新潟市の姉妹都市のロシア・ペロリヤン市、友好都市の中国・ハルビン市、交流事業「東アジア文化都市2015」に新潟市と取り組む中国・青島市が新たに加わり、参加団体は過去最多となった。

交流通じ相互理解を

北東アジア地方議会議長

5カ国64人 新潟でフォーラム

北東アジアの地域間交流の促進と発展を目指す「北東アジア地方議会議長フォーラム」が3日、新潟市中央区のホテルで開かれた。新潟市議会を含む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5カ国12議会の代表者ら64人が参加し、多様な文化の相互理解を深め、協力関係の構築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た。

フォーラムは2009年から参加議会議長が持ち回りで開いており、新潟市での開催は1年に続き2回目。今回は、新潟市の姉妹都市のロシア・ペロリヤン市、友好都市の中国・ハルビン市、交流事業「東アジア文化都市2015」に新潟市と取り組む中国・青島市が新たに加わり、参加団体は過去最多となった。

新潟市議会の高橋三義議長は「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が3日、新潟市中央区のホテルで開かれた。新潟市議会を含む日本、中国、韓国、ロシア、モンゴル、5カ国12議会の代表者ら64人が参加し、多様な文化の相互理解を深め、協力関係の構築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た。

フォーラムは2009年から参加議会議長が持ち回りで開いており、新潟市での開催は1年に続き2回目。今回は、新潟市の姉妹都市のロシア・ペロリヤン市、友好都市の中国・ハルビン市、交流事業「東アジア文化都市2015」に新潟市と取り組む中国・青島市が新たに加わり、参加団体は過去最多となった。

충남일보, 충남일보 [2015.9.4.(금)]



“문화교류, 국가간 갈등극복 대안”

김기영 충남도의회장 동북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참석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동북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석했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각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 의장을 비롯한 중국 김립성, 하얼빈시, 청도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현 등 5개국 12개 단체 의장은 이날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문화교류는 그동안의 동북아 국가 간 정치·경제적 갈등을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라며 “민간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할 때 실질적인 상생 교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트=유희정기자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장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참가

문화교류 통한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간 협력관계 모색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이 동북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장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리는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각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문화교류를 논의하는 동시에 우호협력 관계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중국 김립성, 하얼빈시, 청도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현 등 5개국 12개 단체 의장은 이날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문화교류는 그동안의 동북아 국가 간 정치·경제적 갈등을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라며 “민간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할 때 실질적인 상생 교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영 의장은 지난 7월 2일 아프리카 국가 의회 방문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에 전념, 충남도의회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내 기자 han777@naver.com